

금요 양성, 2025년 9월 12일

성프란치스코의 오상 축일 - 9월 17일

다음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 + 프란치스코 성인은 돌아가시기 2년전인 1224년 9월 십자가 현양 축일 즈음에 오상을 받으셨다.
- + 성인은 라베르나 산에서 미카엘 대천사 축일을 준비하느라 기도를 하고 있었다. 레오 형제가 근처에 있었다.
- + 기도하는 동안 하느님께 두가지를 청했는데, 하나는 십자가위에서 그리스도가 견디셨던 그 고통을 느끼는 체험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고통안에 담겨있던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체험이었다.
- +그러자 잠시후에 프란치스코는 여섯개의 날개가 달린 세라핌 천사를 보았다. (세라핌은 하느님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하느님을 찬미하는 최고품계의 천사들이다.) 날개사이로 십자가에 못박히신 사람의 형상이 있었다. 환시가 사라졌을 때, 프란치스코에게는 그리스도의 상처의 흔적이 나타났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세라핌과의 만남과 성부를 찬미하는 그의 열정으로 인해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세라핌적 수도회라고 칭하게 되었고, 성 프란치스코를 세라핌적 아버지라 부르게 된 근간이 되었다)
- + 우리는 9월 17일에 오상 축일을 지낸다
- + 프란치스코 성인은 기록된 그리스천 역사상 오상을 받은 최초의 인물이다.

오상: 프란치스코로서의 영적인 삶의 영감

우리 삶의 표시들 (The marks in our lives)

- 표시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
-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표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 가톨릭 신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표시되는가? 또 프란치스코로서는 우리는 어떻게 표시되는가?
- 우리를 표시하는 것들이 우리의 영적 삶에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

이제, 십자가를 응시하라

- 그리스도의 오상을 응시할 때 무엇이 마음에 떠오르는가?
-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통을 받으신 것을 숙고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진하여 돌아가심을 묵상할 때,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무엇을 기꺼이 하려고 하는가?
-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으려 할때, 다른 사람에게 봉사를 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기꺼히 사용하려 하는가?

아시시의 성녀 글라라의 오상에게 드리는 기도

https://digitalcollections.franciscantradition.org/document/bx4700-c6a2-2005-d035/the_prayer_to_the_five_wounds_of_the_lord/undated?searchOption=transcriptions&term=The%20prayer%20o%20the%20five%20wounds%20of%20the%20lord&searchType=exact_phrase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기도 (1983년 라베르나 산을 방문했을 때)

오, 성 프란치스코, 라 베르나에서 오상을 받으신이여, 세상은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의 모상이신 당신을 갈망합니다.

세상은 하느님과 이웃에게 열려있는 당신의 마음, 헐벗고 상처받은 당신의 발, 탄원하기 위해 쳐든 꿇뚫린 당신의 손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연약하지만 복음의 힘으로 강해진 당신의 목소리를 그리워합니다.

성인이시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죄의 사악함을 인식하고 참회로 그 죄를 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들이 오늘날 사회의 구조적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정치인들의 의식안에 국가와 백성들사이에 이루어져야 될 평화의 긴박함을 일깨워주소서.

젊은이들에게 당신 생명의 신선함을 불어넣어 주시어, 수많은 죽음의 문화의 울무를 견뎌낼 수 있게 하소서.

온갖 종류의 악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오 프란시스, 용서할 수 있는 기쁨을 가르쳐주소서.

고통과 기아와 전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에게 희망의 문을 다시 열어주소서. 아멘,